



삶의 진리, 우주와 생명의 법칙 랄프 트라인의 「나에게서 구하라」

—잡지기자 金利千씨

지금 독자들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도 있고 어둡게 보는 사람도 있다. 빛과 어둠이 다르듯 서로 다르긴 하지만, 각자의

관점에서 보면 둘 다 옳다. 그러나 관점이 어떠냐에 따라 그 삶이 달라진다고 월간 「미술세계」 기자 金利千씨(30)는 지적한다.

“세상을 보는 관점에 따라 즐거운 삶과 고통에 찬 삶, 성공적인 인생과 실패로 얼룩진 인생이 결정됩니다. 따라서 행복은 자기 안에서 찾아야 합니다. 미국의 문필가이며 사상가인 랄프 트라인의 「나에게서 구하라」(류시화 옮김, 길, 88)도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에게서 구하라」는 동양적인 根本回歸 사상에 뿌리를 둔 세계관으로 우주·생명·사랑·지혜·종교·삶 등을 다룬 책이다. 광활한 우주도 결국은 나 자신과 같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인간이나 사물 하나하나가 모여 우주를 이루는데, 개별적인 인간이나 사물도 사실은 하나의 소유주라는 것이다. 행복의 요소가 우주 안에 있다면 결국 그것은 나 자신 안에 있다는 얘기다. 따라서 세상을 밝게 보는 사람은 밝은 삶을 창조한다고 김이천씨는 말한다.

“세상을 어둡게 보는 사람은 사실은 우주 자체인 자신의 삶을 신뢰하지 않고 행복을 멀리서만 구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말하고 있듯이 우주 밖이란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는 늘 어둡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 삶에 있어서의 가장 기본적인 진리는 모든 종교가 공통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이 책에 의하면, 이같은 사실을 모든

사람이 깨닫게 되면 기독교인이 절에서, 불교인이 교회에서 예배를 봐도 아무렇지 않게 된다.

“결국 진정으로 인간을 구제할 종교는 현재 자신의 삶과 함께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삶의 고통과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책을 읽거나 여행을 떠나는 사람도 있고 종교를 믿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자신 속에 광활하게 펼쳐진 우주를 발견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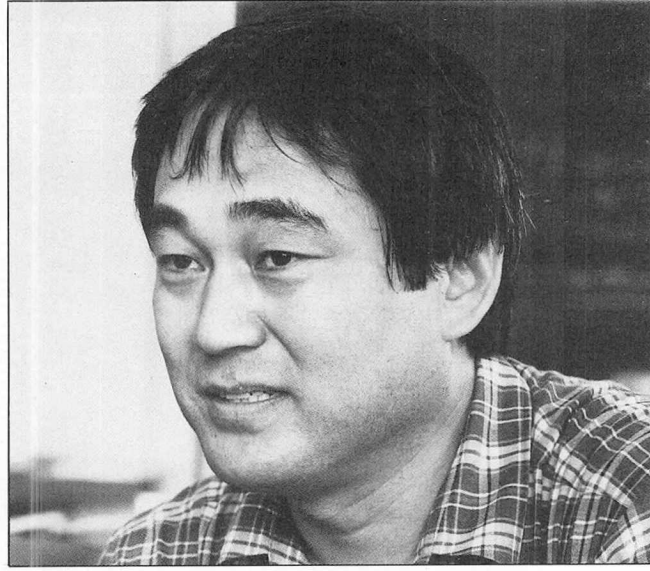
삶의 진리, 우주와 생명의 법칙에 관한 책을 주로 읽었다는 김이천씨는 그것을 주제로 열심히 시를 쓰고 있다. 바쁜 직장생활 때문에 넉넉한 시간을 내기는 힘들지만, 바쁜 생활 자체가 좋은 시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미술대학을 졸업한 후 창작활동만 하다가 경제사정 때문에 작년부터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그는 앞으로 시와 그림을 융합시켜 그 둘이 하나가 되는 세계를 창조하고 싶단다. 스스로의 개성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추구하면 그 꿈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그는 믿는다.

“실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능력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봅니다. 이름이나 지위나 지식에 간혀 자신의 개성을 남에게 주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외부에서 주어진 껍데기에 한정당하지 않고 자신 속에 숨어 있는 개성을 찾는다면 누구든지 위대한 창조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힘있게 말하는 그의 모습에서 생활에 찌든 현대인에게 새로이 밝아올 아침이 보이는 듯했다.

—차창용 기자



한국불교에 대한 애정어린 비판 金容沃의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MBC 프로듀서 李基鎬씨

지금 독자들

金容沃의 글을 읽는 독자는, 우선 그의 거침없는 입담에 수년 묵은 체증이 풀리는 듯한 시원함을 느낀다.

요즈음의 세상돌아가는 모습이 참으로 한심하고 짜증스럽게 느껴지는 이들에게, 그리고 지식인들의 그럴듯한 미사여구, 아리송한 비유와 은유에 식상할대로 식상해버린 독자에게 김용옥은 참으로 신선한 충격이다.

우리가 ‘학자답다’고 할 때 머리에 떠올리는 이미지, 즉 정제되고 또 정제되어 인간적인 온기와는 거리가 먼 듯한 냉철한 논조나 겸허함같은 것이 김용옥에게는 없다. 뻔뻔스러울 정도의 자만심, 인신공격에 가까운 비판, ‘생’것 그대로의 감정 등을 고스란히 내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독자들은 충실한 ‘김용옥 팬’이 되는지도 모른다.

“바른 독자라면 선입견이 아니라 작품으로 작가를 이해해야 합니다. 항간에선 김용옥에 대해 말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 대한 저자의 날카로운 분석은 많은 이들의 공감을 자아내기에 충분하지요. 또한 재미라는 면에서도 독자를 만족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MBC 라디오의 프로듀서이며, 요즈음은 한국방송프로듀서연합회 회장으로 더 바쁜 李基鎬씨(41) 역시 열렬한 김용옥팬이다. 한 작가가 좋다면 김용옥은 습관 덕분에, 최근 몇년 동안은 김용옥의 책을 거의 빼놓지 않고 읽어오고 있다. 그가 요즈음 손에 든 책 역시 지난 5월 출간되자마자 상당한 반응을 모으고 있는 김용옥의 「나는 불교를 이렇게 본다」

(통나무).

주지 자리나 宗權을 손에 넣기 위해서라면 쇠막대기·각목싸움을 서슴없이 벌이는 불교계의 추잡한 분쟁, 80년대 한국의 모순과 고통에 침묵과 은둔으로 일관하고 있는 불교계의 안일한 자세에 대한 저자의 비판은 실로 신랄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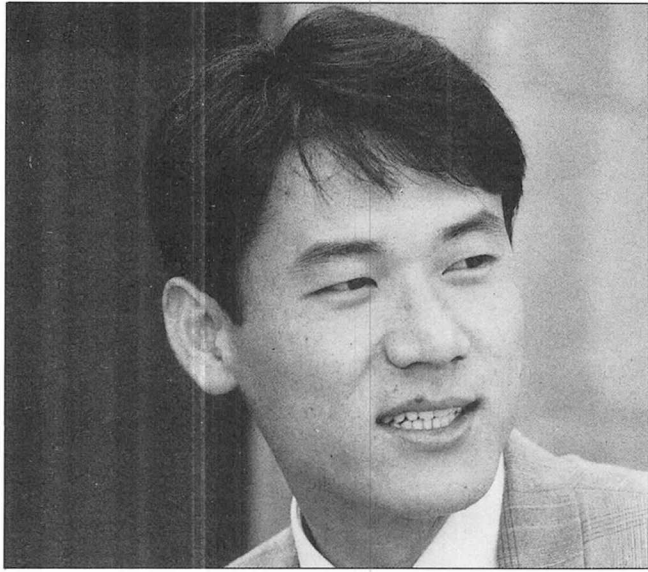
그러나 그 밑바닥에는 불교에 대한 저자의 끝없는 애정이 면면히 흐르고 있음을 독자는 쉽게 간파할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독자는, 그 누구도 불교신자가 아니라고 해서 오늘날의 한국불교가 안고 있는 치부를 마음놓고 욕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아프게 깨닫게 된다.

“조선의 불교가 조선민족의 자주적 흐름의 문화적 역량의 축적의 결과라고 한다면, 이 땅의 스님들이 무어라고 행패를 부리든지간에, 조선의 지식인은 최소한 그 역사(뿌리)에 대하여 관심을 갖는 것만큼 조선의 불교에 대하여 관심을 가져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저자의 지적은, 이 책을 읽는 독자를 편안한 방관자로 놓아두지 않는다.

이기호씨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방송PD연합회는 지난 87년 결성된 일종의 PD친목단체. 회원수는 1400여명에 이른다.

그는 지난 2년 동안 연합회를 이끌어 오면서 자연 방송에 관한 책들을 주로 읽어왔다고 자신의 ‘직업적인’ 독서생활을 아쉬워하면서, 9월 초순 차기회장에게 자리를 넘겨준 뒤 구체적인 독서계획을 세워 불교와 동양철학의 세계를 탐구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오애리 기자



역사와 역사가의 사명 제시 마크 블로흐의 「역사를 위한 변명」

— 직장인 최돈철씨

지금 독서중

누구에게나 책을 고르는 저마다의 방법이 있게 마련이다. 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갖지 않은

상태일 때 장정에서 받은 인상이라든지, 글자의 크기라든지, 저자에 대한 지식이라든지 자신의 기호에 따라 관심을 갖는 요인과 선택이 조금씩 달라진다. 대개는 이 모든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선택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崔嫩澈씨(28·무역센터 현대백화점 근무)가 마르크 블로흐의 「역사를 위한 변명」(정남기 옮김, 한길사)을 구입한 것은 제목에 이끌려서였다.

“역사란 무엇이고 역사서술은 왜 필요한 것인지, 연구방법은 어떠한가 하는지를 적은 책입니다. 대학졸업반이던 지난해 학교도서관의 추천도서목록에서 이 책을 보게 됐지요. 묘한 거부감을 주는 제목이었는데, 추천도서라서인지 책제목이 머릿속에 여운으로 남더군요.”

이책에서 블로흐는 역사학 연구와 관련된 근본적인 질문들에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블로흐는 역사를 ‘총체적인 인간의 모습을 파악하려는 노력’이라고 정의한다. 곧 역사연구는 눈에 보이는 역사적인 사건이나 건물, 수없이 만들어지고 사라져간 제도의 이면에 이 모든 것들과 연관되어 있는 인간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블로흐에 따르면, 피상적인 여러 사건의 나열에 그치는 편년사를 역사 그 자체로 여기는 것은 무지의 소산인 셈이다.

“그래서 블로흐는 고증학적 연구방법을 중요하게 보면서도 史料를 구분하고

정리하여 판단하는데 역사가의 사명이 있다고 믿습니다. 제현상간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작업이죠.”

블로흐가 지적하는 역사가의 사명에서 최돈철씨는 역사가에 대한 경외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역사학이 기록된 과거를 다루는 학문이 아니라, 과거를 재구성하는 창조적인 작업이란 점에 동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사가에게는 문학을 하는 사람 못지 않은 감수성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반인이 갖는 고정관념으로는 역사가의 작업을 사료 속에 묻힌 정태적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사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일이 창조력을 요구한다는 블로흐의 주장처럼 이 작업이 역동적이라는 점을 이해하게 된다.

최돈철씨는 「역사를 위한 변명」이라는 제목도 이러한 맥락에서 역사가의 진실한 고백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추측한다. 바쁜 직장생활 틈틈이 다시 읽게 된 이책에서, 그는 무엇보다 블로흐의 학자다운 면모를 드러내는 사과의 깊이가 좋았다. 그의 표현대로 학문을 하는 사람들에게서만 느낄 수 있는 무조건적인 경외감이라도 좋다고.

현대백화점 숙녀의류코너에서 매장을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는 그로서는 좀처럼 읽을 기회가 닿지 않는 책이다. 대개 업무와 관련해서 경영이나 미적각각을 살릴 수 있는 미술 분야의 서적을 많이 읽기 때문이다.

“학생으로 돌아간 기분이기도 하고, 비유하자면 휴식과 같은 맛을 줍니다. 한편의 책으로 편안함과 함께 자신을 되돌아보는 계기가 되었지요.”

— 홍현숙 기자



색다른 형태의 '글쓰는 기쁨' 이브 본느프와의 산문집 「건널목」

— 시인·문학평론가金正蘭씨

지금 번역중

누군가 책읽는 기쁨은 '몰입'이라 했다. 책 속에서 자신이 추구하는 바를 발견했을 때

책읽기의 기쁨은 절정에 이른다. 시인이며 평론가인 김정란씨(36·상지대 전임강사)가 우연히 “내가 추구하던 길 위에서 그가 추구하는 바를 만나” 희열 속에 공부했고, 이제 또 그의 작품을 소개하지 않을 수 없을 만큼 ‘몰입’하고 있는 작가는 프랑스 시인 이브 본느프와(Yves Bonnefoy). 현대 프랑스 시단에서 ‘발레리 이후 최대의 시인’이란 찬사를 듣고 있지만, 아직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시인이다. 14, 15세기 플로렌스 벽화 전문가로도 이름이 높은 이브 본느프와는 수학·논리학·철학 등에도 빼어난 식견을 가졌다고 알려져 있다. 「두브의 움직임과 움직이지 않음에 대하여」(1953), 「문턱의 迷惑 속에서」(1975), 「빛 없이 있었던 것」(1987) 등 많은 시집과 에세이·평론집을 통해 본느프와가 추구한 것은 언어의 문제였다고 김정란씨는 설명한다.

“본느프와는 철학적 명제를 시적 언어로 접근하면서, 독특한 방법으로 독자와의 커뮤니케이션을 유도하지요. 그의 시나 산문을 읽노라면 뭐랄까, 구체적인 메시지는 하나도 없으면서 세계가 다른 글쓰기에 접하는 느낌을 가져요. 이를테면 고도의 세련된 지적 감증을 끊임없이 표출하면서 ‘저 너머’에 대한 인식을 말하죠. 본느프와가 그 독특한 언어로 보여주는 ‘글쓰기의 기쁨’을 여럿이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혼자 읽기엔 너무도 아름다워 번역을

시작했다는 작품은 「Rue Traversière」(가제 건널목, 1970) ‘가로지르는 길’이란 뜻을 지닌 이 제목은 현실인식과 ‘저 너머’의 인식이 만나는 길목을 상징하고 있다. 여기에 담긴 15편의 산문들은 5행의 짧은 것부터 주장을 언술한 것까지 다양하지만, 작가는 근본적으로 ‘언어와 실재세계의 교차’에 일관된 관심을 보인다고 했다.

“본느프와는 동양에 대한 관심도 많은데, 이 산문집 역시 상당히 불교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서양의 치열한 존재탐구와 동양의 禪의 우아함이 어우러져 독특한 세계를 구축하고 있죠. 아름다우면서도 장중한 글들이 상징적인 언어로 인해 난해하기도 한데, 본느프와의 그런 ‘낯선 글쓰기’가 독자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모르겠군요.”

난해하기 그지없는 시적 산문들을 가장 정확한 우리말로 표현하느라 1년이 넘도록 머리를 지저 뒀다는 고백이다. 심오한 상징 때문에 주석을 달지 않을 수 없는데, 독자를 무시하는 것 같아 조심스럽지만 역자의 최소한의 개입으로 ‘읽는 즐거움’을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다. 본느프와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해설도 수록하고 싶은데, 그것이 이 산문집의 아름다움을 조금이라도 손상한다면 단호히 빼버리겠다는 결심이다.

어쨌든 독자들에게 이 ‘생경한’ 글쓰기가 ‘새로움’의 모델로 평가받았으면 하는 것이 그의 바람이다. 본느프와에 ‘감동한 주체’로 좀더 예쁘고 아름다운 번역문으로 다듬어내고 싶다는 것이 김정란씨의 말이고 보면, 독자가 이 산문집의 생경한 아름다움에 감동하려면 아무래도 늦가을쯤이 돼야 할 것 같다.

— 김지원 기자